

개혁신앙 부록 목록

- 3호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비교표 / 박영선 3면
- 4호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 김명도 20면
- 5호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이해 / 손봉호 16면
- 6호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이해 / 신복윤 10면
- 7호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 / 김명도 24면
- 8호 복음주의, 근본주의, 개혁주의 어떻게 다른가? / 신복윤 24면
- 9호 우리는 왜 WCC를 반대하는가? / 문병호 36면
- 10호 Oswald Chambers의 신학 / 김명도 20면
- 11호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 김명도 20면
- 12호 칼빈의 예정의 논리 / 고광필 28면
- 13호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 박 신 16면
- 14호 평신도 필독 성경과 신앙서적 / 김명도 26면
- 15호 뉴 에이지 운동은 무엇인가? / 김명도 26면
- 16호 개혁과 교회론 / 서철원 26면
- 17호 죽음, 부활, 심판 / 김명도 외 36면
- 18호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 / 이승구 외 28면
- 19호 칼 바르트의 신학과 비평 / 한종희 44면
- 20호 단일론이란 무엇인가? / 김명도 36면
- 21호 칼빈의 5대 교리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 / 홍석승 48면
- 22호 레노바레 / 조진모 40면
- 23호 종교다원주의 발생 배경과 개혁주의의 대응 / 이은선 24면
- 24호 칼빈주의 vs 알미니안주의 / 정은표(편집) 44면
- 25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 김효성 외 36면
- 26호 이단사이비이 교회사적 고찰 / 박용규 24면
- 27호 칼빈의 제네바교회 교리문답(상) / 정은표(편집) 48면
- 28호 칼빈의 제네바교회 교리문답(하) / 정은표(편집) 56면
- 29호 현대교회 은사운동의 실체 / 김병혁 외 2명 52면
- 30호 신사도개혁운동의 실체 / 양현표 외 64면
- 31호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 / 김명도 외 60면

* 주문 : 부록 1권 당 \$2씩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The Truth Lighthouse

1816 Crested Bird
Irvine, CA 92620
(208)921-5336

<http://thetruthlighthouse.org>



개혁신앙 31호 부록

개혁신학 관점에서 본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

1.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
2. 개혁교회 예배의 특성
3. 한국교회 예배 변천사
4. 개혁교회의 언약적 예배



대 속죄일(레 16:1-34, 23:26-32)



개혁신앙 <31호> 발행인 정은표 발행일 2015년 6월 1일
발행처 월간 개혁신앙 idaho_jesus@hotmail.com
1816 Crested Bird Irvine, CA 92620 (208)921-5336



고 김명도 목사(1935-2014)

개혁교회의 예배는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이다

오늘 날 사람들이 예배를 논할 때 ‘예배가 성경적인가?’하는 예배의 본질적인 신학과 교리 보다는 ‘예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가?’하는 이벤트성 예배의 형태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이렇게 오늘 날의 한국교회의 예배가 ‘성경적인가 아닌가?’하는 고민 보다는 다른 교회와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 번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생각이다. 만일 예배가 성경적이 아닌데도 단지 교회 성장과 전도의 효과가 있다고 그것을 그냥 모방 한다면 이는 목사가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고, 그보다도 성경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므로 결과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헛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결과가 된다.

오늘 날 대부분 교회의 예배는 ‘교회 성장과 부흥’에 매몰되고 신학교

의 ‘예배학’ 강의가 사라지고, 구약 사사시대처럼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예배드리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명하셨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하려는 교회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나 반대로 성경보다는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교회는 성경대로 바른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한국교회가 혼탁하고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모두 성경대로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회가 있어 여기 저기 교회를 방문해 보면 신앙 고백대로 드리는 정통 예배는 거의 없고 대개 성경의 가르침은 무시한 채 오로지 사람들의 기분에 맞게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오늘의 예배풍토다. 간혹 목사가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그 교회 힘 있는(?) 제직들이 반기를 들고 이웃 교회처럼 예배하자고 하면 목사가 양보하여 성경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교회도 많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고(갈 1:10) 참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가르쳐 준다. 그리스도의 양 무리를 주님께 위임받아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여 목회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전락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다. 목사가 안수 받고 선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양할 것을 서약했는데 이를 스스로 파기했으니 하나님 앞에 책임질 문제이다.

‘예배의 성경적 개념’을 논하기 위해 먼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생각 해 보고자 한다. 옛날 에덴동산의 예배로부터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예배를 살펴보면 자연히 예배의 성경적 개념이 들어난다. 그리고 이 성경적 예배와 오늘날의 예배를 비교해 보면서 오늘날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개혁주의자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지금은 은혜 시대이니 구약 시대처럼 철저히 예배드리지 않아도 적당히 하나님을 경배하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1. 구약의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가?

(1) 아벨의 예배

에덴동산의 예배는 간단했다. 타락 전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화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뱀의 말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 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이렇듯 자기를 위해 자기 생각대로 살려다 범죄 하여 하나님 앞에서 추방 될 수밖에 없었다. 타락의 결과로 아담의 지정의(知情意)가 모두 타락했다.

지(知, intellect)는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말하고, 정(情, emotion)은 본인과 이웃과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이고, 의(意, volition)는 그리스도의 의(義)를 덧입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말한다. 아담의 이 모든 것이 한 순간에 타락하여 가치관의 기준이 무너짐으로 일대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럼에도 아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는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히 11:4)

(2) 시내 산 이스라엘백성의 예배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이스라엘백성이 집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시내 산에서였다. 출애굽기 19-2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백성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에는 이스라엘백성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 해 주셨다. 이스라엘백성의 예배 형식은 매우 간단했다.

-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드린다.(출 24:4-6)
-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는다.(출 24:7 상)
-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 하리이다.”라고 화답한다.(출 24:7,8)
-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라고 했으니, 이스라엘백성은 그의 대표자들 통해서 하나님에게 화목제를 드렸다.(출 24:9-11)

(3) 솔로몬의 예배

성경에 나오는 예배는 모두 시내 산 예배 형식에 맞추어져 있다. 예배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부분은 아마도 역대하 5장-7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예배일 것이다 이 기록을 보면 그때의 예배는 위에서 말한 출애굽기 24장의 예배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시킨 것을 알 수 있다. 구약 역대하 5장-7장을 보자.

- 솔로몬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두령들 즉 백성들을 회집했다.(대하 5:2-5)
- 제사장이 양과 소로 번제를 드려 죄 문제를 해결했다.(대하 5:6)
-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갔다.(대하 5:7-10)
- 여호와께 시편으로 찬양을 드렸다.(대하 5:11-14)
-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대하 6:1-11)
-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렸다.(대하 6:12-42)
-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히 채웠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여 제사장이 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대하 7:1,2)
-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감사하여 시편을 노래했다.(대하 7:3)
-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렸다.(대하 7:4-9)
- 온 백성이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여 돌아갔다.(대하 7:10)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배 신학(禮拜神學)을 보면 그 신학이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다.

-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였다.
-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신 일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 하도록 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촉구했다
-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설교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런 구약의 예배 형식은 진정한 예배의 개념을 잊은 지 오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양식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다.(히 8:5 출 25:40) 이 성막의 모양은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히 7-10장)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의 예배는 모세가 보고 따른 영광스럽고 거룩한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거룩한 예배를 지금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가?

2. 신약의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가?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신약의 예배 양식은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를 모방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회당의 목적을 오해한 것이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 아무도 회당이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예배란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배)에 항상 번제물이 따랐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예배드릴 때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일이 중요한데도 어느 대형교회 미국 목사는 교회에서 죄 문제를 다루지 말라고 강조한다. 그 목사는 지난 2007년 부활절 예배 중 세례 받을 사람들은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 세례받기를 자원하는 2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근착 'Christianity Today' 잡지가 말했다. 속사람이 중생하지 않고 받는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주님이 세우신 성례(聖禮) 중 하나가 세례다. 이는 마땅히 교회에서 당회의 문답을 거친 후 본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베풀어야 할 일이다.

유대인의 회당(synagogue)은 신앙생활을 위한 학교였다. 그 목적은 유대인이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며 준비시키며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회당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기록하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 수가 성을 지나실 때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이 예수님께 “그리심 산과 예루살렘 중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라고 묻자, 예수님이 “아무 회당이나 네가 편한 데로 가서 예배하라.”고 하시지 않았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오직 한 곳 예루살렘이었으나 그가 오신 후에는 예배하는 장소가 변했다고 말씀하셨다.(요 4:21-23) 그리고 그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므

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사도들은 교회를 ‘새로운 성전’이라고 가르쳐 준다.(고전 3:16,17 벰전 2:5) 그리고 구약의 화목제의 의미를 성찬식에서 찾는다.(고전 10:18) 회당에서의 설교와 기도는 사도들의 예배 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요한 계시록에 보면 예배의 형식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환상을 보면 모세와 솔로몬이 예배드리던 모습 그대로이다.

(1) 요한 계시록이 보여주는 예배

- 예배를 드리려고 회집한다.(계 4:1-11)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린다. 구약 역대하 5:2-5의 말씀과 같은 형태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보좌를 둘러 24장로가 앉아 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 경배 드리기 위함이다.

- 죄 문제를 거론하고 해결한다.(계 5:1-7)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아무도 그 책을 펼 수 없으므로 사도 요한은 운다. 그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기에 요한이 우는가? 그 책에는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이 적혀 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즉 구속사(Redemptive History)는 희생을 통해서만 계속할 수 있다. 오직 죽임 당한 하나님의 어린양만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목적을 선포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 하나님 전에 나아가며 기도한다.(계 5:8)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의 대표자인 24장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 찬송시를 노래한다.(계 5:9-14)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룩한 구속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노래한다. 그리고 다음에 열거하는 네 가지는 계시록에서 5번이나 반복한다. 계시록에 보면 ‘일곱’이라는 숫자를 이용하여 일곱 나팔, 진노의

일곱 대접 등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건의 순서대로 매번 반복됨을 본다. 그 공통으로 반복되는 네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일

둘째, 기도하는 일

셋째, 하늘이 제단을 태우고 영광이 성전을 채우는 일

넷째, 찬송시를 노래하는 일

이 네 가지가 요한 계시록에 어떻게 반복하여 기록되었는지 보면 앞에서 언급했지만 계시록의 ‘일곱’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재앙에 모두 들어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 계시록 6:1-8:5

이 구절에서 일곱 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의 찬송과 기도로 이어지고 끝에는 하늘에서 천사가 단(壇) 위의 불을 담아다 땅위에 쏟으니 뇌성과 지진이 난다는 말로 끝난다. 즉 제단으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으로 끝난다.

• 계시록 8:6-11:19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의 기도와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오는 빛과 우레 소리로 끝난다.

• 계시록 12:1-15:8

일곱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 그리고 주의 영광이 성전을 채우는 것으로 끝난다.(15:8)

• 계시록 16:1-21

일곱 대접을 보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사람들은 아무도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잠잠한 것으로 끝난다.

• 계시록 17:1-19:5

이 구절의 바벨론의 멸망을 그리는 장면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성도들의 찬송으로 끝난다.

• 계시록 19:6-10,17-21

화목제가 기록되었는데 두 잔치에 초대함을 본다. 첫 잔치는 성도들을 위한 어린양의 혼인잔치 이고 둘째 초대는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 이는 공중의 새들을 위한 것이다.(19:17) 어린양의 혼인 잔치는 축복의 잔치이고 하나님의 큰 잔치는 저주와 심판의 잔치이다.

•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여기에 나타난 마귀와 마귀를 따르던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는데 반하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록은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이 같은 거룩한 예배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가신 때부터 시작되었고, 그의 마지막 심판이 올 때 끝이 난다. 그 때는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향한 그의 목적을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예배이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3.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의 예배와 사도들의 예배의 개념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예배가 어떠한가를 보았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 같은 성경 말씀에 조명해 보자.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이런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다.”(요 14:6)고 하셨다. 디모데전서 2:5에는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중보자는 인간 예수뿐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키심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그의 언약으로 우리를 감싸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마치 아름다운 향(香)처럼 하늘의 보좌에 상달된다.

구약에서 번제를 드릴 때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웠던 것을 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을 내려 보내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의 불이 아니라 성령을 말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는데, 물론 성찬식이 우리의 죄를 없이해주는 의식이 아니지만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어 죄를 멀리하게 된다.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의 상징이지만 구약의 모든 화목제를 완성하는 잔치이기도 하다. 성경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며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힘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한 주간을 세상에서 지내고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다. 비록 잘못돼가는 퇴폐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삼스레 상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이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4. 오늘 날의 예배 형태는 어떤가?

2세기부터 17세기까지 모든 정통교회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배드렸고 예배에 관한 인식도 같았다. 특히 종교개혁 후에는 교회 예배에 대한 특별한 경외감을 가지고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인식으로 예배를 존중하며 엄숙한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명하신대로 예배드리기를 힘썼다. 그래서 악기도 사용하지 않았다. 원래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칼빈도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성경의 시편만 노래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에서 예배를 설명하면서 시편만 노래하도록 말한다. 그래서 무반주(a capella)로 불렀다. 존 프레임(John Frame, RTS Orlando분교 조직신학) 교수는 그의 책 'Music in Worship'에서 장로교가 원래의 예배는 악기를 쓰지 않고 시편을 반주 없이 불렀다고 말하고 있다. 스코트 클락(R. Scott Clark, 서부 Westminster 교회사) 교수의 저서 'Recovering The Reformed Confession'은 '예배와 음악'에 대한 고전적인 책이다. 그럼 언제부터 교회에서 시편 찬송을 중단하고 반주를 도입하여 사람들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는가?

(1) 찬양의 변질로부터 시작 된 오늘날의 예배

1620년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오늘날과 같은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고 장로교 전통대로 시편만 노래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기독교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 닥쳤고 상당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 이유는 18세기 중엽부터 일어난 미국의 영적 제1차 대각성운동 때문이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은 173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그로 인하여 프린스턴대학을 세우는 좋은 면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예배에서 상당히 변질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청교도의 후예들인 이민 2세와 3세가 신앙을 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교회생활을 등한히 하다 보니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그 때 Jacob Frelinghuysen (화란 계 목사)과 William Tennent 그리고 그의 아들 Gibert Tennent 등이 회개를 외쳤고, 특히 Frelinghuysen 목사는 노방전도를 하며 'Danger of Unconverted Ministry'(회개하지 않은 목사들의 사역의 위험성)라는 설교로 목사들을 일깨웠다.

이 설교는 미국 도처에 퍼져 나갔고 Massachusetts주 Northampton에서 목회하던 Jonathan Edwards의 호응을 얻게 되었다. 그 뒤를 이은 Charles Finney 목사는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부흥주의'를 도입하여 처음으로 찬송 시는 너무 단조롭다는 이유로 흥을 부추기는 Issac Watts의 찬송가를 많이 도입했다. 뒤를 이어 시카고의 Billy Sunday, D.L. Moody 등도 호응하였고, 교회 '부흥주의'를 피하는 목사들은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시편만 노래하던 옛 예배로부터 새로운 양상 즉 찬송가 가사를 별

도로 쓰고 누군가가 곡을 붙인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찬송가의 제왕이라 불리는 Isaac Watts와 미국의 Fanny Crosby와 영국의 Charles Wesley 등이 앞 다투어 찬송 시와 찬송가를 만들어 교회에 보급했다. 물론 시편을 노래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다. 그 후 이런 추세는 크게 유행하여 교회마다 시편을 버리고 찬송가 일변도로 흘러가 오늘날에는 'Christian Rock and Roll'이란 이름으로 모든 요란한 악기를 동원하는 형태로 이른바 CCM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Christian Rock 'n' Roll'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어법(oxymoron)이다.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거룩한 쓰레기'란 말이 존재할 수 없듯이 말이다.

몇 년 전 Los Angeles Civic Center에서 한국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집회에서 너무도 음악이 시끄럽고 요란하여 많은 참석자들이 퇴장한 적이 있다. 오늘 예배를 성경적으로 바로 아는 목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몰라서 성경대로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인가? 어느 편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다.

(2)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는 오늘날의 예배

오늘날의 예배는 모든 사람의 기분을 내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은 소위 불신자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열린 예배'라는 왜곡된 예배 형태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신학교 학생들 말을 들어보면 어떤 '열린 예배'에서는 복음성가만 얼마동안 노래하고 설교는 생략한다고 하니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이다. 차라리 '예배'라고 하지 말고 달리 부르면 좋겠다. 예배에 말씀이 없으면 사람만 모여서 기분을 내다가 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인간 모임으로 전락한다. 이 같이 교회가 하나의 사교장으로 변해 가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이다.

교회에 출석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유는 '너무 지루해서'라고 응답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루한가? 하나님을 원망하던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을 만나니 두려워서 입술이 떨렸다고 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매 입술을 가렸다고 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 자기를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지루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교회에서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자처하고 직분을 자랑해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떨리고 감격해 한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다. 절대로 예배를 '지루한 하계' 느끼지 않았다.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또한 예배는 어디까지나 '시는 자'(施恩者, 은혜를 베푸는 자) 중심이지 절대로 '수은자'(受恩者, 은혜를 받는 자)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아 두자,

초기의 청교도들은 자녀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가 2시간을 설교해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다.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지루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예를 들면 요나단 에드워즈가 1771년 7월 8일 Connecticut 주 Enfield라는 마을에 있는 작은 회중교회에서 신명기 32:35 한 절을 가지고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할 때 죄를 회개하며 모두 통곡하며 울었다고 한다. 회중이 너무 울기 때문에 설교자는 간간히 "Silence, please!"라는 말을 하며 진정해 지기를 기다려 설교를 계속하는 바람에 40분 설교가 1시간 30분이 되어서야 끝났다고 한다.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가?

18세기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Charles Finney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부터 악기를 도입하여 교회의 예배가 감성주의 일변도로 변해 버렸고, 당시 성직자들은 그런 변화에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원래의 시편을 노래하는 무반주(a capella) 형태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시편'의 찬송 시를 반주 없이 노래하는 것보다 새로 '사람이 작사하고 작곡한 찬송가'를 부르니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 편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오늘 전통적인 찬송가보다 복음성가를 더 선호하는 성도들이 절대 다수인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노래를 더 사랑한다. 이것은 가인의 후예들의 특성이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창 4:21) 이것이 점점 악화되어 오늘날에는 교회가 CCM의 요란한 반주와 열창(熱唱)으로 시끄러운 극

장처럼 되어 버렸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다분히 기분을 풀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경향으로 변해 버렸다. 예배의 찬양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 즐거움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3) 성경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 회복의 시작이다.

이것은 사탄의 무서운 속임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으신 분이다. 예배 또한 하나님 은혜이다. 고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거절한다. 예배를 거절당하면 하나님의 저주만 있을 뿐이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라.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라.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임을 제일 먼저 알라.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부터 먼저 알자. ‘성별, 구별’이란 말이 일반 성도를 지칭하는 ‘성도’(hagios)의 의미이지만,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할 때는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절대’라는 말은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독특하여(unique Being) 스스로 계신분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 제일 먼저 손꼽히는 것이 그의 ‘거룩성’(Holiness of Sovereign God)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임을 제일 먼저 인정해야 한다.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요구하며 백성들이 거룩해 지기를 요구하신다.(벧전 1:13-16)

예배에 대한 바르지 못한 개념은 음악이나 설교만이 아니다. 집회도 마찬가지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 해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는 없었다. 간혹 2부 예배가 있다면 장소가 협소하여 동시에 많은 교인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두 번 예배를 드린 적은 간혹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이유가 아니고 교인의 편리를 위해 예배 시간을 정하여 예배한다. 주일 1부 예배나 2부 예배를 일찍 드리고 주일의 나머지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세상일에 바친다.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사도신경에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고백한다. 성경에 성도는 항상 복수 ‘hagioi’로만 쓰인다. 시도산경을 원문 라틴(Latin)어로 보라. ‘Communicatio sanctorum’이다. 즉 복수라는 말이다. 그 이유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같이 덕을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분할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릇된 이유는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남는 시간을 날 위해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에 따라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미국의 정통 장로교 중 하나인 OPC교단에서는 목사가 주일을 범하면 목사에게 중징계(divest)를 한다. 해임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성경적 주일 성수 개념은 모두 사라지고 각기 자기 편리한대로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나서는 모두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주일을 지킨다. OPC교단은 2009년 총회에서 찬송가를 시편 중심으로 개편했다. 꽤 잘 한 일이다.

세속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John Robinson은 그의 책 ‘Honest to God’이라는 책에서 “Love God and do whatever you want to do.”(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후에는 무엇이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는 네 마음대로 살라고 가르친다. 독일의 Dietrich Bonhoeffer라는 목사는 “예수를 교회에 가두지 말고 세상에 보내라.”고 했다. Harvey Cox라는 Harvard 신학교수도 그의 ‘Secular City’라는 그의 책에서 같은 말을 한다. 이런 무서운 세속 신앙이 오늘 기독교 교계를 타락시키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다.

이상에서 우리가 본 성경적인 예배 형태를 오늘의 모든 교회가 따른다면 요즘에 한창 시끄러운 예배 형태에 대한 논쟁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예배가 거룩해 지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도 따라서 거룩해 질 것이다. 오늘 사회에 부조리가 심하고 죄가 더해가는 이유는 교회마다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없고, 바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 할 자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 서울의 모 대형교회 원로목사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바친 그 많은 액수의 헌금을 가지고 평양에 가서 ‘평양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고 그 교정에 ‘김일성 영생 탑’을 세웠다고 한다. 이는 하나님께 용서 받지 못할 죄악이다. 그 유명한 목사는 십계명의 제2계명도 모르는 것 같다.

중세 때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너무 무식해서 교황청에서는 가끔 신

부들을 대상으로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시험을 보았는데 낙제하는 신부가 수두룩했다고 William Stevenson이 쓴 ‘Story of Reformation’ (종교개혁 일화)란 책에서 말하고 있다. 오늘 기독교계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에 대해 이보다 더 한 무식한 지도자들이 많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칼로 나무를 깎아 우상을 만들고 복을 달라고 그 우상에게 절했지만 요즘은 칼과 가위를 들고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난도질 한다. 이 같은 무서운 ‘배교’(apostasy) 행위가 판쳐도 노회나 총회는 무관심 하고, 성도들은 뭘 모르고 “아멘!”만 연발한다. 악하고 폐역한 세대이다.

예레미야 5:30,31을 읽어보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몰라서 혹은 정면으로 무시해서 일어나는 죄악상들이다.

결론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바로 예배드리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방법을 성경에 기록하셨다. 성경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예배가 아니라면 예배는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이다.

유대인의 회당에는 ‘모세오경’과 ‘토라’를 간직해 두는 정면 벽에 이런 글귀가 있다. “너희가 지금 뉘 앞에 섰는가를 알라!” 그래 그들은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이 말씀 앞에 떠난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요 소멸하시는 불이다. 그러므로 예배 자에게 먼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하라!”고 ‘절대 거룩’을 요구하신다. 오늘과 같은 배교(apostasy)가 득세하는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이 열납(悅納)하시는 예배 자가 되자.(*) 글쓴 이 / (고) 김명도 목사



Herbert, John Rogers, RA (c. 1844), The Assertion of Liberty of Conscience by the Independents at the 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s (painting).

개혁교회 예배의 특성(1)

성경과 신앙고백을 따른 예배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항상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다. 그러나 점점 더 인간 중심의 예배가 유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

개혁교회 예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오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말은 개혁교회만의 고유한 어떤 특정 예배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절을 예로 들어 보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서로 다른 날을 부활절로 지킨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일반적으로 서방교회가 오랫동안 정

하여 지켜왔던 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 개혁신교회는 동방교회가 아니라 서방교회에 이미 속해 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동방교회가 옳은 지 서방교회가 옳은 지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을 하지는 않았다. 즉 개혁신교회는 상당부분 서방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면서 그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부분만을 개혁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예배에 있어서 개혁신교회는 공(公) 교회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혁신교회는 ‘오직 성경’뿐만 아니라 ‘규범적 원칙’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예배를 추구하였다.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는 자신들의 예배야말로 가장 성경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심지어 이단들도 똑같이 말한다. 결국 이들과 개혁신교회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개혁신교회가 예배에 있어 성경의 모든 핵심적 가르침을 요약 정리한 신앙고백서를 따른다는 것이다. 즉 개혁신교회는 바로 이 신앙고백서에 근거하여 성경적 예배의 이상(理想)을 실천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몇 가지 개혁신교 예배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1) 성례전 중심에서 설교 중심으로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성례전 중심의 예배이다.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인정하는 개신교와는 달리 로마 가톨릭교회는 견진, 혼례, 고백, 서품, 종부 성사와 같은 비성경적인 예식도 성례로 인정하였다. 예배는 특별히 미사로 불리는 성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수많은 그림이나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반면에 설교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는데, 설교에 대한 강조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설교를 할 수 있는 성직자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는 예배’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세 사회는 교육이 부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글을 읽을 수 없었고,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도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복음의 회복이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명제(命題)를 발표했을 때 그 첫째 명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외쳤던 ‘회개’에 관한 것이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복음은 성례전을 통해서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종교개혁은 이 기존관념에 도전하여 설교야말로 복음을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외적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사도 바울의 선언은 복음에 관하여 종교개혁이 굳게 붙든 진리였다.

이 같은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예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거의 없어지다시피하거나 성찬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던 설교가 이제는 예배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개혁신교회는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어떻게 보면 칼빈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정리한 ‘기독교 강요’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제로 교회에 전파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설교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설교를 전파할 설교자가 없다면 설교의 중요성은 하나의 구호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설교가 예배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기존의 ‘보는 예배’는 ‘듣는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점에서 종교개혁은 무엇보다 믿음에 있어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맹목적인 믿음(implicit faith)도 믿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참된 이해가 없더라도 교회의 가르침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해도 그것을 효과적인 믿음이라고 보았으나, 종교개혁은 그와 같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이해시켜서 확신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바르고 깊은 이해는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찬은 화체설(化體說)로 인해 미신적인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으로 인해 성도들은 분명한 말씀에 대한 이해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게 되었고 이것은 믿음의 강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추구한

예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종교개혁의 설교중심의 예배는 성찬을 배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바로 하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개혁자들이 원한 것은 주변부에 자리 잡고 있던 설교를 중심에 위치시키고자 하였을 뿐이다. 그리하여 성찬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여 설교와 더불어 온전한 예배를 이루기를 원하였다. 실제로 칼빈의 경우 이 이유 때문에 성찬을 매주 실시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결국 성찬을 자주 시행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예배 전통을 현재에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직자 중심에서 회중 중심으로

종교개혁으로 인해 예배에 있어서 새롭게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은 회중 중심의 예배이다. 이 점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가장 처음에 예배에 임하는 회중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배는 철저하게 성직자들 중심의 예배였다고 할 수 있다. 예배에 참석한 평신도들은 그야말로 구경꾼이었다. 그들은 성직자가 제단에서 하는 성례전적 행위들을 구경하고, 이따금 묻는 질문에 기계적으로 짧은 말로 “아멘!”이라고 할 뿐이었다.

더 큰 문제는 모든 예배의식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도할 때도 찬송을 할 때도 라틴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지한 성도들은 그냥 성직자들이 진행하는 예배를 구경꾼처럼 지켜 볼 뿐이었다. 예배의 찬송 또한 회중들의 찬송이 아니라 성가대의 찬송이었다. 언어가 라틴어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곡조도 대단히 어려워서 훈련된 성악가들만이 부를 수 있었다. 따라서 찬송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음악 공연을 듣는 시간이나 다름이 없었다.

종교개혁은 이 점에서 찬송의 혁명을 이루었다. 시편 가사도 모국어로 번역했을 뿐 아니라 곡조도 회중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조로 바꾸었다. 그 결과 예배 시간에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든 회중들이 함께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시편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중세 시대의 예배에서 회중들이 소외된 것은 성찬에도 마찬가지였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화체설로 인해 포도주는 예수님의 실제 피로 간주되었고, 실수로 쏟아질 가능성 때문에 포도주 잔은 회중들에게 분배되지 않았다. 회중들은 떡은 받아먹을 수 있었지만 포도주는 성직자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마시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이것은 명백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실례와 상충되었지만 로마 가톨릭교회는 떡과 포도주의 차이점을 부정함으로 떡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전통을 변명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 어떻게 잘못된 예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각 나라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한 동방교회에 비해서 라틴어 예배만을 고집한 로마 가톨릭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이룰 수 있었으나, 그것을 위한 성도들의 희생은 너무나 큰 것이었다. 분명한 이해가 없는 예배 속에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간의 내적, 실제적 연합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예배에 있어서 내적이고 실질적 연합이 없을 때 외적인 연합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 모든 비성경적 전통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예배가 일부 성도만이 아닌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이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3절은 예배에 있어서 모국어의 필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모국어 예배가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 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하였다.

이 성경 번역은 종교개혁이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이 이제 일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국어를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글을 읽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모국어로 진행되는 예배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예배를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위한 예배모범’(The Directory for Family-Worship)도 따로 작성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다. 종교개혁의 설교 중

심의 예배가 성찬을 없앴 것이 아니듯이 회중 중심의 예배가 성직자의 중요성을 없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만인 제사장 교리를 주장하였지만 이것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재세례파와 같이 만인 목사설로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개혁교회는 공 예배에서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을 목사로 제한시켰다. 설교는 목사의 고유한 직분으로 규정하여 아무나 설교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찬송 역시 모두가 부를 수 있도록 하였지만 목사의 지도를 받게 하였다.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종교개혁의 모든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목사는 철저하게 회중을 섬기는 봉사자(minister)의 역할을 할 뿐이다.

2. 단순하고 질서 있는 성삼위 하나님 중심의 예배

종교개혁으로 인해 예배 형식은 이전과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그것은 예배가 놀라울 만큼 단순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성경’과 ‘규범적 원칙’을 적용시킨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종교개혁은 기존의 예배에서 성경의 명시적 명령이 없는 인간적 전통들을 예배당 밖으로 추방하였다. 예배당 구조는 보다 단순화 되었고, 그림이나 형상들은 제거되었다. 화려한 성찬 상(聖餐床) 대신 단순한 강대 상(講臺床)이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다. 성가대가 없어졌으니 그들이 앉는 자리나 그들이 입는 화려한 의복도 사라지게 되었다. 성인들을 숭배하는 절기나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도 교회 속에서 폐지되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순결한 교회를 이룩하였다.

예배의 단순함은 개혁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순수한 말씀이 성례와 더불어 참 교회의 표지라면 단순한 예배는 참 예배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개혁교회가 이렇게 단순함을 추구한 이유는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개혁교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형식도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이 점에서 개혁교회는 제 1계명뿐만이 아니라 제 2계명도 아주 신중

하게 받아들였다. 제 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이라면 제 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개혁가들은 우상을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하시지 않고 인간이 고안해 낸 것으로 이해하였다.

사람들이 우상을 고안해 내는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눈에 보이는 그림, 성인들에 대한 기도, 그들을 위한 절기 등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보다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교회는 수많은 인간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8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것이라고 정죄한다. 개혁교회의 예배는 이런 교만한 자들과의 오랜 투쟁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개혁교회의 예배가 단순함을 추구하였으나 이것이 무(無) 형식을 추구하였다는 식으로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종교개혁은 비성경적 형식에 대한 반발이었지 모든 형식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개혁교회는 교회의 모든 실천적 영역에 있어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따라 질서정연함(decency)을 추구하였다. 이 점에서 개혁교회는 모든 형식을 인간적인 것으로 매도한 재세례파나 신령주의자와 구별된다. 심지어 성경적인 예배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도록 하는 데 힘썼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재세례파에 의해서는 비성경적이라고 낙인찍힌 유아세례는 개혁교회에서 언약신학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풍성하고 유효하게 실행되었다. 심지어 성례로 간주되지 않았던 견신례나 혼례성사 및 서품성사도 단지 그것들이 성례로 인정받지 않았을 뿐이지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예식으로 올바르게 자리를 잡았다. (*) 글쓴 이 / 이성호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출처 /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진이 공동집필한 '개혁주의를 말하다'에 실린 글, 코람데오닷컴



개혁신교회 예배의 특성(2)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예배

예배는 교회의 얼굴이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해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교회마다 예배의 요소와 순서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고백한다. 예배에 성경에 대한 믿음과 신학과 고백이 녹아있을 수밖에 없다.

1.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의 오늘 한국교회의 예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날 한국교회 개교회의 예배요소와 순서가 종잡을 수 없다. 각 교단마다 자신들의 신학을 예배요소와 순서에 분명하게 투영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문제는 교회마다 신학과는 배치되는 요소와 순서까지도 효과라는 측면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 예배를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 교회의 예배요소와

순서를 보면 사사기(士師記)에 기록되어 있듯이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이다.

예배요소와 순서를 보면 어떤 요소든지 가능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생각, 언약적인 원리에 맞다면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 성경이 금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생각, 성경이 적극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 다양하다.

특히 한국교회의 예배요소와 순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만남이라는 생각에서 점차로 멀어져 감을 볼 수 있다. 예배도 전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여 예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공연이 되어가고 있다. 개혁신교회의 전통적 '듣는 예배'가 로마 가톨릭교회처럼 '보는 예배'로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개혁신교회의 예배는 철저하게 언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처럼 예배의 사유화와 획일성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 교회 직분 자들에 의해 예배순서가 수시로 변경될 뿐 아니라, 심지어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예배 기획자들에 의해 예배요소와 순서가 마음대로 주물러지고 있다. '예배는 언약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에 따라 공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점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종교적인 열정만 넘쳐나고 있다. 예배요소와 순서 및 예배분위기에 대한 기획은 넘쳐나지만 정작 예배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늘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2.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개혁신교회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성도의 삶과 교회생활의 중심이 예배이다. 그런데 이 예배는 특히 공적인 예배를 말한다. 개인적으로 혼자서 성경을 묵상하고 찬송하는 것을 예배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직분 자들의 인도를 따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공적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공개적인 자리이다. 신자들은 공적인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나주신다. 신약 성도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시내 산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에 나아간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같은 공적인 예배이며, 그 공적인 예배는 항상 언약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다. 사제만 활동하는 감독교회의 예배와 회중만 활동하는 회중교회의 예배와 다른 개혁신교회 예배의 독특성이 언약에 대한 이해에 있다.

(1) 개혁신교회 예배는 언약적이다.

개혁신교회는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공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배로 본다. 그러므로 개혁신교회 예배의 독특성은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이해에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와 맺으신 언약은 세상 사람들이 맺는 계약과 그 성격이 다르다. 세상의 모든 계약은 두 당사자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성이 두드러진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다. 하지만 언약을 맺은 후에는 두 당사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 편과 그 백성 편에서 각각 언약의 요구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한다.

고로 개혁신교회의 예배 요소와 순서에는 이 언약의 일방성과 쌍무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배순서 하나하나에 다 언약적인 요소가 녹아있다. 예배요소와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부분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그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분과 교제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게다가 이 공예배속에 모든 직분자들의 직분사역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모든 직분은 일차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부름 받았다. 목사의 말씀선포, 장로의 성찬상 보호, 집사의 금홍사역이 예배를 통해 다 드러난다. 예배를 통해 자신의 직분사역을 확인하지 못한 직분자들은 다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2) 언약적 예배는 공적인 일이다.

한국 개신교 신앙은 철저하게 내면화된 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것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서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면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공적인 부분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물론 신앙의 내면화는 비단 동양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본다. 신앙이란 것은 공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적이고 내면적인 성질의 것이라는 생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생각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계몽주의가 신앙을 공적인 영역에서 몰아내고 사적인 영역에 가두어 버릴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그래서 오늘 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심지어 ‘공적인 예배는 너무 형식적인 것이기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공 예배는 대충 때우고 각 그룹별로 모여서 성경공부를 한 다든지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원이나 특별한 집회에 참여하기를 좋아한다. 영성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경건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개인적인 수도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것을 통해 지어저가는 집처럼 신앙 공동체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교훈하고 있다.

공적인 예배가 너무 경직화됨으로 ‘삶의 예배’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적인 예배는 삶의 예배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신약 시대에는 제사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없어지면서 상황이 자연스럽게 바뀐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leitourgia’(혹은 latreia, public duty)의 용례가 이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 예배’에 사용된 용어들이 폭넓은 상황으로 확장된다. 예배가 삶과 떼어 수 없이 연결되었다. ‘삶의 예배’ 또는 ‘가정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公) 예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 모임인 공(公) 교회의 개념과 희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이라는 방편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공적으로 만나 주셨다. 신약 시대에도 이 원리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성도는 개개인의 신비체험이나 영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여야 한다. 전통적으로 개혁신교회는 예배의 이 언약적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 요소와 순서를 교단의 총회를 통해 항상 검토하고 논의해 왔다. 즉 예배순서를 첨가한 다든지, 예배순서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도 철저하게 신학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서 확정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총회 지상주의가 되면 언제든지 반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교회의 하나 됨을 확인하기도 힘든데 다른 무엇을 통해 하나 됨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성도들이 사업상 그리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 타 지방으로 출타했을 때에 같은 교단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서 한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장로교에 속한 교회,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개혁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초교파 교회를 지향하는 듯한 현상을 볼 때 심히 염려스럽다.

(2) 성도는 언약적 예배에서 자유를 누린다.

어느 교회는 개혁교회의 예배가 언약적임에도 불구하고 목사 개인의 원맨쇼처럼 보이기도 한다. 교인들의 참여를 배제한 체 목사 한 사람이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제처럼 홀로 예배를 이끈다는 느낌이 강하다. 예배요소와 순서를 지나치게 고정시킨 것도 이런 인상에 한 몫을 한다. 이 같이 예배가 획일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예배는 성경적이고 언약적이어야 하지만 성경에서 예배요소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성경봉독과 설교, 세례와 성찬식, 기도와 찬송이 예배의 핵심요소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요소들도 실은 성경적인 원리에서 추론한 것일 뿐이다. 우리 개신교는 유대교의 회당예배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고로 성경적인 예배라는 말로 각 시대의 교회들이 누려야 할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배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조차도 언약에 근거한다고 본다.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언약은 철저하게 관계적이다. 그러므로 언약에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놀라운 자유가 있다. 언약은 세속적인 계약처럼 언약의 조항들이 있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 내리는 벌과 저주가 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언약의 한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에 자유롭게 반응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전체와 더불어 공개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예배요소를 사유화해서도 안 되겠고, 예배순서를 화석화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언약의 주권자인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예배는 성경대로 질서 있고 규모 있어야 하겠다. 하지만 예배는 언약의 당사자인 성도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언약을 따라 드리는 예배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자유로운 예배이다.

3. 언약 예배는 끝나지 않았다.

공(公) 예배의 언약적 특성을 통해 개혁교회는 교회의 공(公) 교회성을 계속적으로 고백해 나간다. 교회는 언약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바로 그 교회에 동참한다. 세계 모든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양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예배가 언약적인 예배에 근거하고 있는 한 지역과 민족과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의 거룩한 공(公) 교회에 동참하게 된다.

언약적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또한 역사상의 모든 교회의 예배로부터 배울 점도 있다. 여기에는 회당 집회도 포함된다. 더 나아가 구약 제사 제도로도 포함된다. 제사 제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 제도가 신약교회의 예배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지상 교회의 예배가 완결된 것은 아니다. 즉 개혁교회의 예배라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언약적인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성령 중심적이기에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개혁교회의 예배는 언약적이기에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교훈하는 예배이다. 교훈적이면서도 동시에 송영적인 예배가 바로 언약적 예배이다.

또한 지상 교회는 아무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해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더 풍성해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족한 우리 예배지만 늘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하나 됨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언약적 예배의 본질인 것이다. (*) 글쓴 이 / 안재

경 목사(화란한인교회 담임목사, 고려신학대학원 M. Div) 출처 / 코람데오닷컴

2. 초기 한국인들이 경험한 만주교회 예배

교회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칼빈과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거행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한다. 이 말에 동의하게 된다면 한국 교회의 시작은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1884년보다 훨씬 이전인 18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1879년 10월에 이미 만주에서는 한국인들 30여 명이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하고 있었고 그해에 4명의 한국 사람이 최초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만주에서 모였던 이 한국인 초기 신앙공동체를 한국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만주에서 신앙을 얻은 이들이 한국에 와서 초기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백홍중, 서경조, 이응찬 등의 최초 한국인 성도들은 만주에서 만든 성경과 소책자를 가지고 이미 1884년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한국에 들어와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만주에서 한국인들이 경험한 예배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만주에서 한국인들을 선교하였던 로스(John Ross) 선교사는 1903년에 자신의 선교를 회고하면서 ‘Mission Methods in Manchuria’라는 책을 서술하였는데 그 속에는 만주교회 다양한 집회의 종류들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글에서는 만주교회에서 한국인들이 경험한 예배의 커다란 특징만을 정리하고자 한다. 만주교회 예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성경공부 중심

만주교회의 예배가 특별히 성경공부 중심의 모임이었다는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 많았다는 점도 원인이 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 당시 로스의 한국어 성경번역에 참여하였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주로부터 배운 한국인들의 예배전통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경전을 읽고 해석하는 전통에 익숙하였던 한국인들에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한 암송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만주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모임의 전통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초기 신앙공동체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 초대교회 장년 성경공부 시간, 여 성도들은 따로 뒤쪽에 앉아있다

한국교회의 예배 변천사(變遷史)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 본 예배

1. 들어가는 말

이글의 목적은 한국 장로교 예배의 형성과정을 서술함으로써 한국 장로교 예배의 개혁을 위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별히 이 글은 한국 교회 초기에 나타나는 여러 예배의 형태들을 서술하고 그것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데 관심을 가진다. 사실 한국 교회의 초기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기보다는 성경공부 중심의 집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글을 통하여 어떻게 한국 교회의 초기 예배가 이 같은 집회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국 교회의 지나온 예배를 살펴보는 것은 이후 우리들이 예배를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도 중심

만주 교회 예배의 또 다른 특징으로 성숙한 교인을 유창한 기도로 구분하는 만주 선교사들의 잣대를 들 수 있겠다. 만주 교회는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공적인 자리에서 공 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고 그들은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3) 평신도 중심

또 만주 교회로부터 얻은 예배의 특징으로 평신도들에 의해서 인도되는 예배를 들 수 있겠다. 한국에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전도하려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평신도로서 한국의 초기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고 또한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였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한국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자국의 평신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점에서 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한국 초기의 예배는 평신도들에 의해 드러진 예배였던 것이다.

3. 선교사들이 소개한 예배전통

1984년 이후로 한국에 들어온 서구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미국의 청교도 전통(Puritanism)과 영적 부흥운동(Revivalism)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이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남겨준 예배의 전통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발전한 '기도주간'(week of prayer)을 우리에게 소개하였다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그들만이 영어로 예배를 드리던 1885년부터 이미 기도주년을 지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 주일동안 특별한 선교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였던 것으로 통성기도는 아니었지만 열정적인 기도의 주년을 보내곤 하였다.

1887년 처음 한국 교회가 세워진 후에 바로 1888년 1월에 한국 교회는 독자적인 기도주년을 지켰다. 또한 그들은 가능한 자주 기도모임(집회)을 갖곤 하였다. 결국 이러한 전통은 한국교회에 부흥운동의 씨앗이 되었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기도를 중시하고 신앙의 부흥을 열망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또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전하여 준 예배 전통은 각 교단의

예배 전통에 연연하지 않는 탈 교파적 예배 전통이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선교적 열정 때문에 각 교단별 연대감은 약했다. 선교 초기부터 한국의 선교사들은 감리교와 장로교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1887년 12월 31일 감리교 전통인 야성회(Covenant Service)를 감리교 교인들과 장로교 교인들이 함께 드렸던 기록이 있다.

후에 이 예배는 송구영신(送舊迎新) 예배로서 한국교회의 전통적 예배가 되었는데 한국교회의 예배는 이 같이 교파 간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가 하나의 특성이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후에 한국 장로교회 예배가 장로교회의 교파적 특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네비우스 선교정책과 초기 한국 장로교 예배

초기 한국 교회 예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1891년 선교사들이 받아들인 네비우스 선교정책(Nevius Methods)이다. 네비우스의 선교방법은 선교사역과 교회생활에 있어서 현지인의 참여를 극대화하였다. 네비우스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남자, 여자, 어린이 등 각각의 사람들이 지도자와 교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즉 네비우스는 현지인에 의한 선교가 훨씬 효과적임을 굳게 믿었던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네비우스는 현지인을 대리자로 만들었다. 선교와 예배는 몇몇의 훈련받은 조사를 통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조사들은 상당수의 교회를 책임지고 지도한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작은 교회들(신앙 공동체)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들이란 신앙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평범한 사람들인 상인이나 농부들이다. 네비우스는 이러한 평범한 현지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정규적인 신학수업을 받지 않은 평신도들이 예배의 인도자가 되도록 만들었다. 1907년 평양신학교에서 한국인 목사들이 배출되기 전까지 한국 교회는 이러한 평신도 인도자들에 의해서 예배가 인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지인 평신도의 예배 주도권(worship initiatives)을 유지하기 위해 네비우스는 예배 인도에 서투른 지도

자를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첫째, 무엇보다 네비우스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예배에서 조직적인 설교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배에서 설교를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도록 하였다. 즉 설교(preaching)가 아니라 성경공부(teaching)를 하도록 권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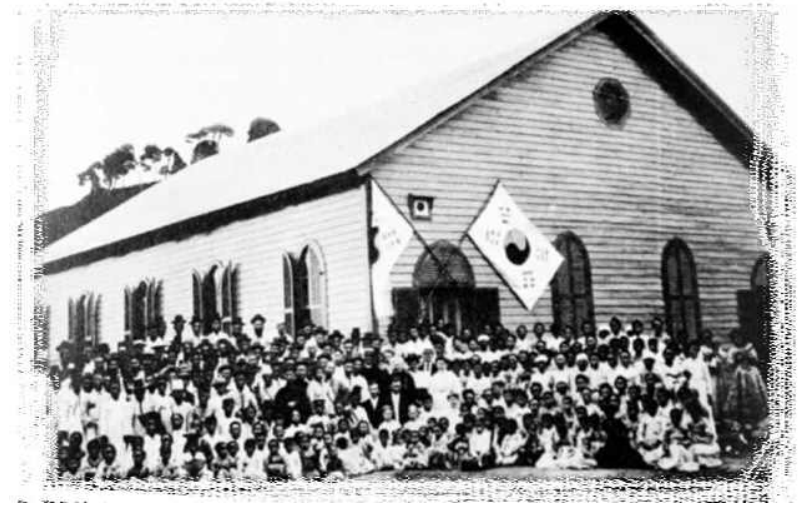
둘째, 평신도들이 긴 순서의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임시적이지만 가능한 간단한 예배순서를 만들어서 그 예배순서대로 예배를 드릴 것을 적어 놓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미를 부를 것이요,
- 기도를 할 것이요,
- 성경을 볼 것이요,
- 교우 중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기도를 할 것이요,
- 찬미를 부를 것이요,
- 그날의 성경의 뜻을 풀어 가르칠 것이요,
- 기도를 할 것이요,
- 연보 전(錢)을 드릴 것이요,
- 찬미를 부른 후 마칠 것이요.

셋째, 네비우스는 예배 인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연합예배(Union Service)를 개발하였다. 한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연합예배를 통하여 평신도 인도자들은 선교사나 조사들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드릴 예배의 내용을 익히고 가르칠 성경공부의 내용을 배우곤 하였다.

넷째, 네비우스는 성경공부반(Bible Study) 운영을 제안하였다. 농한기에 6주에서 두 달 동안 계속되는 특별 성경공부로 이 기간에 신학교육 등이 이루어 졌다. 후에 이 성경공부 반은 사경회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같은 네비우스의 선교정책이 한국 교회 예배에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내용으로는 평신도의 예배 참여가 만주 교회의 예배이후 계속 네비우스 선교정책으로 유지되었다는 것과 간단한 예배순서가 평신도의 예배인도를 위하여 권장되었다는 점, 그리고 예배에서 설교가 아닌 성경공부가 권장되었다는 점이다.



1907년 원산 남동교회 사경회(查經會)

5. 1907년 이후의 부흥집회

1907년에 있었던 한국의 대(大) 부흥운동은 한국 교회 예배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 대 부흥운동은 선교사들이 소개한 기도주간과 네비우스 선교정책이 제안한 사경회(查經會)가 연결되면서 일어났다. 결국 1907년 사경회에서 공동체의 회개를 동반한 극도의 '감정적인 예배'가 나타났다. 이러한 예배는 미국의 '부흥운동'과 유사한 형태로 단순한 예배와 함께 불신자들을 향한 구원 초청과 회개의 기도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부흥운동의 결과로 한국교회의 설교자는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초청을 하는 기능자가 되어가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 불신자와 그들의 회개에 치우치게 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이때 한국 교회에는 독특한 기도의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통성기도와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새벽기도, 밤을 새우는 철야기도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는 산상기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기도 형태는 오직 한국에서만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여왔으며 한국 교회의 예배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결국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부흥회와 기도회 등의 '집회 성격이 강한 예배'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6. 1920년대의 예배 갱신의 운동

평신도에 의해 주도되던 한국 교회의 예배는 1907년 7명의 한국인 목사가 최초로 배출되면서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서의 평신도의 역할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1910년 콥안련(Charles Allen Clark) 선교사는 신학생과 목사를 위한 강도(講道, 설교) 요령을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성경공부의 형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바야흐로 목사들에 의한 조직적인 설교시대가 열린 것이다. 한국인 목사들의 역할은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점차로 평신도를 위해 마련되었던 간단한 예배순서가 아닌 교파적 특성을 지닌 보다 길고 다양한 예배순서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1919년 콥안련 교수는 ‘목사 지법’(The Pastoral Theology)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그 책에서 그는 목사들에 의해서 주도될 새로운 예배순서를 제안하였다. 그 예배순서에는 칼빈과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순서인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 그리고 성서를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는 것(lectio continua)와 설교와 관련된 성서를 읽는 것(lectio selecta)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선교사들은 초기 한국인 목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유지하여왔던 평신도가 인도하는 예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제는 한국 목회자들에 의해서 보다 정규적인 예배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이러한 선교사들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한국교회는 훈련된 목회자들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에 의해서 드러지던 단순한 예배를 고수하였다. 1932년 새문안 교회에서 드러진 예배 순서와 1895년 네비우스 정책을 토대로 임시로 평신도들에 의해서 드러진 마펏 예배 순서의 초안을 비교하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마펏 예전(1895) / 찬송, 기도, 성경봉독, 기도(회중가운데), 찬송, 성경공부, 기도, 봉헌, 찬송

새문안교회 예전(1932) / 예배사, 찬송, 기도(장로), 시편낭독, 성경봉독, 찬양(찬양대), 설교, 기도, 봉헌과 기도, 광고, 찬송, 축도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교회의 예배는 목회자들의 배출이후에도 네비우스 정책으로 마련되었던 마펏의 순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콥안련 선교사가 제안한 고백의 기도라든가, 사도신경의 낭독,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성경본문 등의 순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평신도 인도자를 위한 임시적 예배의 형태였던 마펏의 예배순서가 한국교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 1920년대에 있었던 선교사들의 예배 갱신운동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예배에 있어서 평신도들이 모이던 집회의 형식을 고수함으로써 참다운 예배의 회복을 이룩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예배순서는 1980년대에 새로운 예배 갱신운동이 한국에 소개되기까지 계속되었다.

나가는 말

이제까지 특별히 한국 교회의 예배가 평신도들에 의해 주도되어지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만주 교회로부터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한국에 들어와 전도하고 가정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 예배가 주도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에서 선교정책으로 받아들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한국 토착민의 자립과 자치를 장려함으로써 예배에서도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 교회 초기 예배는 간단한 순서가 특징이었으며, 한인 목사를 배출하기 시작한 후(1907)에도 계속 초기의 단순한 예배순서를 사용하여 왔음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였다.

그러나 초기 선교사들 중에는 한국 교회의 예배가 더 엄숙한 형식을 갖춘 예배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신학생들에게 가르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초기 한국 교회의 예배 갱신운동은 불행히도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도리어 1907년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부흥회와 각종 기도회 등의 영향으로 더욱 제각기 예배가 아닌 ‘감성적 집회’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같은 초기 한국 교회 예배에 관한 정보들은 한국 교회의 예배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 지를 알려주고 있다. 또한 1980년 이후 한국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 갱신의 노력 등을 통하여 과거에 집회의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교회의 예배가 보다 나은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 (*) 글쓴 이 / 김경진 교수(백석대학교)



오늘 날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꿈꾸는 전형적인 예배당과 예배 형태

개혁교회의 언약적 예배

서론

교회는 예배의식을 통해 세상에 그 얼굴을 들어낸다. 그래서 예배의식은 그 교회의 정체성을 들어내는 것이다. 교회는 예전이란 얼굴로 어느 교회인지를 인정받게 된다. 1618년 도르트(Dordrecht) 총회는 예배의식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런 결정을 했다; “예배의식을 교회 공문서에 첨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예배의식으로 교회가 개혁 된(reformed) 교회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배의식은 교회 생활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예배 순서는 각 당회나 목사의 자유와 재량에 맡겨 둘 것이 아니다. 교회적 연대를 가지고 하나의 신앙고백과 교회질서를 가진 교회들은 공통적인 예배의식을 가져야 한다. 물론 세미한 부분까지 일치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예배의식의 근간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공통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한국교회의 형편을 보면 같은 교회 공동체아래 있

으면서 각 교회가 서로 전혀 다 예배순서를 도입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사사시대와 같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삿 21:25)

개혁교회의 예배의식은 감독교회, 하나님의 성회, 침례교회 등으로부터 달라야 한다.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개혁교회는 예배 의식에도 신학과 역사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개혁교회의 예배의식(Reformed Liturgy)

예배의식(Liturgy)이란 말은 원래 구약의 주를 섬긴다(serving)는 동사에서 왔다.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섬긴 일을 가리켰다. 신약시대에 예배를 영어로는 ‘Service’ 혹은 ‘Worship Service’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공적으로 섬기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개혁 교회 예배는 곧 신약 적 예배이다.

이것은 이상 더 구약적인 수평적(horizontal) 방법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수직적(vertical) 예배라는 것을 가리킨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수평적인 차원의 예배였다. 회중이 접근하여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금 촛대와 향단이 있는 성소가 있어 제사장만이 드나들었으며, 거기서 회장을 지나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어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다. 이 성전제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었다. 일반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제사장을 통한 간접적인 것이었고 먼 것이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상징적인 것이 성취되고 현실화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수평적(horizontal)과정을 거치는 먼 길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성전의 상징적 제도를 이루시고 성소와 지성소사이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길이 열렸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으로 계실 뿐 아니라, 또한 그가 성령을 보내어 우리들의 보혜사로 임재(臨在) 하시기 되었다. 그래서 개혁주의 예배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임재하심을 보게 된다.

그 결과는 신약적 예배는 단순히 구원을 경험하고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임재를 실감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28,29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고 했다. 영어 번역에는 ‘섬길지니’란 말을 ‘예배’로 번역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다.(thus let us offer to God acceptable worship with reverence and awe;)

그런데 오늘 날 많은 교회들이 구원의 즐거움과 체험을 강조하는 나머지 예배에 경건함과 두려움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敬畏心)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축제로만 강조한 나머지 예배가 한 즐거움(entertainment)의 시간이 되어 감을 보게 된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치우친 현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예배에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감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개혁교회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 다 회집하여 드리는 것이다.

개혁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가족(부모와 언약의 자녀들, 노년과 청년)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아름다운 기회이다. 구약 시대에도 흠어져 살던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큰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 온 사실을 보게 된다. 시편 122:1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했고, 시편 84:1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와 그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함이며 내 마음 속에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했다.

그림자와 상징 속에서 언약의 주를 만나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아름다웠다면, 모든 것이 성취된 신약시대의 예배는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 히브리서 12:32은 신약시대 예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고 한다.

신약 교회의 예배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거기 내려오고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하다.”고 노래하며 한 지붕아래 내려와 나르며 함께하는 것이다.

(3) 개혁교회 주일 예배에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봉사에 나선다.

개혁교회 예배에서는 모든 직분자들인 목사, 장로, 집사들이 각기 자기가 받은 소명을 따라 능동적으로 봉사에 임한다.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장로들은 교회 예배를 살피고 감독함으로, 집사는 감사헌금을 거둬서 주님이 맡기신 각각의 직분을 따라 봉사에 임함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한다.

(4) 개혁교회의 예배는 직분 자들과 회중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개혁교회의 예배는 두 극단적인 예배 형태를 배제한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회중이 없어도 사제만으로 예배가 성립된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사제가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중이 없어도 사제는 혼자 미사를 집례 한다. 이런 체제 아래서는 회중이 전적으로 수동적일 뿐이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회중이 없이는 교회가 없다. 결과 회중 없이 직분자만의 예배는 상상할 수 없다. 교회는 회중과 직분 자들로 구성되고 예배는 직분자의 인도로 집행이 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교회와 다른 극단을 걷는 집단이 있다. 이것은 직

분을 부정하고 회중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보는 회중교회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직분자들이 없어도 예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부름 받은 ‘말씀 사역자’나 ‘장로’ 없이 회중의 대표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게 된다. 오늘 많은 교회가 예배순서에 많은 ‘평신도’들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순서 등에 참여하게 함으로 성경대리가 아닌 회중교회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본다.

(5) 개혁교회 예배는 언약 적 예배(Covenantal Liturgy)이다.

언약에는 두 상대(two parties)가 있다. 기독교의 이 두 상대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다. 한편은 주 하나님이고 다른 편은 그의 백성이다. 한편은 창조주이시고 다른 한편은 피조물이다. 한편은 구주이고 다른 편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사이의 예배의식에는 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분과 그의 백성이 화답하는 부분이 있다. 언약은 쌍방(雙方)간에 이루지나 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심으로 시작된다.

원래 언약은 주권자 여호와께서 무자격한 백성을 상대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결국 언약은 여호와 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졌고 그의 언약의 상대인 백성에게는 순종이 요구되었다. 여호와와 그의 백성과의 언약의 성립은 일방적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단지 받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단지 그가 주신 것을 드릴 뿐이다. 이런 양편의 교통이 개혁교회 예배에서 들어난다.

이 언약 적 예배는 양편의 교통(交通)으로 그 요소가 양편으로 나누어진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이 있다. 이것들은 언약의 계명, 성경봉독, 말씀의 선포, 축도 등이다. 회중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예배예로의 부름, 신앙고백, 기도, 찬송, 감사헌금 등이다.

이 예배에서 목사는 중재역을 맡는다. 물론 목사는 구약 적 제사장이 아니다.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백성과의 사이에서 예배의 중재자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나 기도드릴 때는 회중의 대표로 그들의 입이 된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영원히 내려올 때까지 지상 교회에는 중

재가 아직 필요하다. 결과 개혁교회 예배 순서는 양편에서 오는 요소들로 이루어지며, 목사가 중재로 봉사하게 된다.

2. 개혁교회 언약 적 예배의 표준 순서

언약 적 예배 순서는 예배의 원리와 그 근간을 말할 뿐이며 세밀한 순서까지 정해진 철칙이 아니다. 예를 들면 성례, 포괄적 기도, 헌금 순서를 말씀의 사역 후에 두느냐 혹은 앞에 두느냐는 문제에 대하여는 당회와 목사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 순서가 변경될 수도 있다. 그래서 캐나다 개혁교회의 ‘찬양 책’(The Book of Praise, pp. 581-583)에 보면 두 가지 예배 순서 지침이 나와 있다.

< 오전 예배 순서 >

이하 (L)은 여호와 편, (C)는 회중 편을 가리킴

I. 예배의 시작

- ♦ (C) Votum(예배로의 부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시 124:8)
- ♦ (L) Salutation(여호와와의 축복 응답)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고전 1:3) 혹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 1:4,5 a)
- ♦ (C) 첫 번째의 찬송

II. 죄의 고백

- ♦ (L) 언약의 십계명

출애굽기 20:2-17 혹은 신명기 5:6-21

- (C) 죄의 고백기도
- (L) 죄 사하심의 은혜의 선언
- (C) 감사 찬송

III. 말씀의 봉사

- (L) 성경봉독
- (C) 축복을 위한 기도 찬송
- (L) 말씀의 봉사
- (C) 화답송(아멘 송)

VI. 성례(세례, 성찬)

- (L.C.) 주께서 주시고 그의 언약백성은 화답함

V. 13 기 도

- (C) 주의 온 교회를 위한 포괄적 기도

VI. 헌 금

- (C) 자비 사역을 위한 감사헌금

VII. 마 침

- (C) 마침 찬송
- (L)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찌어다. 아멘”(고후 13:14) 혹은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민 6:24-26)

위 순서에서 IV,V,VI은 III 앞에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교회도 있

다. 성례 는 일반적으로 2개월 혹은 3개월마다 있고, 세례(유아세례)는 매 주 오전 오후 예배시마다 기회가 주어진다. 유아와 산모의 사정을 보아 설교 전에 세례를 베푸는 예가 많다.

3. 예배순서 각 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

(1) 예배의 시작

예배 시작 약 10분전부터 회중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 시간에 반주자는 오르간 혹은 피아노로 고요히 전주를 한다. 그 동안 모인 성도들은 그의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한다.

예배를 시작하기 약 1분 전 반주를 그치고 회중은 예배에 임할 준비를 한다. 찬양대가 있다면 적어도 예배시간 5분 전에 들어와 착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혁신교회의 전통은 찬양대를 두지 않는다. 예배 시에 모든 백성이 함께 찬양함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배 시간이 되면 당회실로부터 당회의 담당 장로가 앞서고 그 뒤에 목사와 다른 장로 집사들이 뒤따라 예배 실에 들어온다. 담당 장로는 강단 밑까지 가서 목사에게 악수를 하고 장로 좌석으로 돌아간다.

이런 교회의 관습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박해 시에 예배에 방해를 받는 일이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데서 생겼다고 하며, 종교개혁 후 목사들이 귀하고 여행 중의 낯선 목사가 설교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당회는 그 목사를 면담하고 난 후 설교단에 인도함으로 교회에 당회가 신임하고 설교를 하도록 의뢰한다는 뜻을 보였다고도 한다.

그 기원이야 어떠했던 이것은 아름다운 교회 전통으로 개혁신교회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당회가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단에서 내려 올 때에도 그 담당 장로는 강단 아래로 나아가 악수를 하고 목사 앞서 인도하여 퇴장함으로 당회와 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표하는 상징적 행동으로도 보이게 된다.

- (C) Votum(예배로의 부름)

목사가 장로와 악수를 나누고 단위 강대 앞에 서면 모든 회중이 일어난다. 이 때 바로 목사는 회중을 대표하여 엄위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다음의 성경 말씀으로 기원 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시 124:8) 이것을 ‘예배에로의 부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호와와는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성호이다. 이제 언약의 백성(우리)이 함께 모여 언약의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 여호와와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시 103편)

♦ (L) Salutation(여호와와의 축복 응답)

이어 목사는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자격으로 그를 대신하여 그의 말씀으로 여호와와의 응답 적 축복을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 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고전 1:3) 혹은 계시록 1:4,5a, 이 때 목사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양 편을 봉사하는 종이 된다. 이것은 예배 시작의 축도(강복선언, 降福宣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로서 전 예배에 걸쳐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은혜와 평강을 확신하게 된다.

축도는 예배 시작 때의 것이나 마칠 때의 것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는 것이야 한다. 목사는 자기 생각을 따라 여러 경건하고 좋은 말을 붙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른 말을 첨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트리는 일이다.

그리고 회중은 예배에로의 부름이나 여호와와의 응답 적 축복 시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라고 한다.(눅 24:50,51) 제자들은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한다.

물론 예배는 다른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다. 시편 100편, 1편, 2편, 113:1,2 등을 사용하여 회중을 하나님의 경배에로 초청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예배의 시작은 개혁신교회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정착되어 있는 시

작의 순서이다.

♦ (C) 첫 번째의 찬송

예배 시작 찬송은 삼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송하는 내용을 갖춘 것을 택할 것이다. 시편 92편, 100편, 111편, 캐나다 찬송 책 2장-6장, 한국 찬송가 9장-11장 등이다.

(2) 죄의 고백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움을 얻게 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가 제거되어야 한다. 지난날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모든 종들도 하나님 앞에는 경외심을 가졌고 자격 없음을 의식하였다.

언약의 십계명은 언약백성에게 있어서 감사생활의 규칙인 동시에, 죄를 생각나게 하고 고백하도록 이끄는 말씀이다. 그래서 먼저 십계명을 선포한다.

♦ (L) 언약의 십계명

십계명은 언약의 하나님이 그의 언약백성에게 주신 감사생활의 규칙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할 종이 그를 대신하여 읽는 것(선언)이 자연스럽다. 근래에 많은 교회의 예배순서에 십계명이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시류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십계명을 선언할 때에 세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첫째, 예배에서 십계명을 선언하는 것은 옛날의 문서를 읽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계명을 들읍시다.”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라는 서론 없이 바로 “나는 너를 애급 땅 종 되었던 집에서...”부터 시작함이 좋다.

둘째, 십계명을 선언한 후에 주께서 마태복음 22:37-40에서 이 계명

을 요약해 주신 말씀(민 6:5, 레 19:18)을 첨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약의 십계명과 요약한 것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반복일 따름이다.

셋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는 언약의 계명을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다. 두 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출애굽기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 신명기에는 그 목적을 더하고 있다.

- ♦ (C) 죄의 고백기도

개혁교회의 예배서에는 죄에 대한 공(公) 고백 기도문이 있다. 다른 교회에도 이런 기도문을 사용하는 일이 있다. 공 고백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은 좋으나 늘 사용하게 되면 신선미가 떨어질 수 있다. 한국 교회들 중에서 공 고백 기도시간을 2,3 분 회중에게 주어 각기 죄를 고백하는 기도시간을 갖게 하는 것을 보는데 이를 좋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 때 소리 내어 통성기도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혼란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때 기도는 침묵 가운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L) 죄 사하심의 은혜의 선언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비추어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죄를 사하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된다. 이 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게 된다. 이 때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할 수 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 찌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함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리로다.”(시 130:7,8)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시 103:3-5)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의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 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 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사 1:18)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9, 18:18)하셨다. 이 매고 푸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회중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감사 찬송이 따르게 된다.

- ♦ (C) 감사 찬송

목사는 주의 깊게 감사 찬송을 택해야 한다. 죄 사함 받은 감사와 순종의 생활을 원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시편 30,32,33,103 등이 좋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성호를 송축할지이다. ...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시 103:1-5) 이제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3) 말씀의 봉사

개혁교회는 설교를 예배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예배의 모든 다른 요소들은 이 여호와를 만나 그의 말씀을 듣는데 연관이 되고 집중되어야 한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6주에서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라고 한다.

- ♦ (L) 성경봉독

어떤 교회는 설교의 본문과 관계없이 전통을 따라 구약, 신약으로부터 일부분을 읽는다. 이것은 성경을 갖기 어려웠던 옛날에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교회의 예배 때뿐이었기 때문에 생겨난 전통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개혁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설교와 관련 있는 본문을 읽게 된다. 가능하면 구속사적 관련이 있는 본문을 신구약으로부터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교본문이 구약일 때는 신약을 먼저 읽은 후에 구약의 본문을 읽는 것이 좋다. 이 본문은 곧 하게 될 설교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이다.

봉독할 성경 본문은 택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일 뿐 아니라, 봉독을 위한 준비도 잘 해야 한다. 물론 설교 준비할 때에 여러 번 읽은 본문이지만 회중 앞에서 잘 읽을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 (C) 말씀의 축복을 위한 기원 찬송

어떤 분은 성경 봉독 후에는 바로 설교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흠모하는 내용의 찬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찬양대가 합창을 한다. 그런데 이보다는 온 회중이 찬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 (L) 말씀의 봉사

설교에는 봉독한 전 본문이 설교의 본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봉독한 본문 중에 설교의 본문(핵심 본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설교 본문은 전체 성경을 결집하는 한 중심적 단위가 된다. 청중은 이 본문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 설교 전에 그 '본문'을 한 번 더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럼 설교는 무엇인가? 고전적 정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설교를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설교는 설교자 한 사람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방적 활동이 아니다. 설교에는 듣는 대상이 있다. 그래서 설교자는 듣는 대상과 눈과 마음의 접촉이 있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교 원고를 준비할 뿐 아니라, 원고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미리 기도하고 원고를 외울 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설교는 설교자의 활동 이상을 의미한다. 말씀은 성령의 증거이다. 성령은 말씀의 증거를 통해 신앙을 일으키신다. 그러니 교회당은 성령의 작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 안에서 주신을 주시기까지 하신다. 그러니 말씀의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설교자는 교회에서 벽을 향해 설교하지 않고 반응을 하는 마음을 가진 회중을 상대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고 교회의 회중이란 대

상이 관련된 일이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동안 언약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매우 밀접한 언약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도행전 6:4에 사도들이 구제를 위한 일곱 사람을 택하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하였다. 여기 '말씀 전하는 것'은 '말씀의 봉사'로 읽을 수 있다. 설교는 말씀의 봉사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예화를 드는 일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예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의 기억에 남게 해야 한다.

- (C) 화답송(아멘 송)

이것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찬송이다. 이것은 설교자가 선언할 필요 없이 설교자의 설교가 '아멘'으로 마치자 회중이 바로 화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설교자가 설교 시작 전에 '아멘 송'을 미리 선언하는 것도 좋다. 설교자는 설교의 내용과 조화되는 찬송을 미리 정선해야 한다.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즐겼을 때, 회중은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하며 찬송하게 될 것이다.

(4) (L. C.) 성례(세례, 성찬)

세례와 성찬은 언약의 하나님 편에서 주시고, 회중 곧 언약의 백성 편에서 감사로 반응함으로 양편이 밀접하게 연관된다.

세례;

세례는 설교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리적인 관점에서 바른 일이다. 세례는 말씀의 약속을 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례의 설교 후 집행은 장년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유아 세례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유아세례는 출생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언약의 표를 받게 되어 있다.(교회법질서 57)

일반적으로 유아가 출생한 그 다음 주일에 세례를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 설교가 마칠 때까지 유아가 조용히 있기가 어렵고 산모의 건강이 문제가 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 전에 유아세례를 베푸는 경

우가 많다. 개혁신교회에서는 세례 전에 의식문(儀式文)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교를 대신하게 될 수 있다고 본다.

세례가 끝나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 회중이 찬양하게 된다.(시 105:2,3 등) 일반적으로 부모와 목사가 세례 단 옆에 그대로 서 있고 온 교회 회중이 일어서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인치는 성례일 뿐 아니라, 언약의 자녀가 주의 몸 된 교회에 공식적으로 접 부침을 받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유아의 부모뿐 아니라, 온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다.

성 찬;

개혁신교회에서는 각 지역교회의 재량에 따라 1년에 4번 혹은 여섯 번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개혁신 교회 성찬예식 집행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목사가 떡을 떼고 잔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회중에게 보게 집례를 한다. 이것은 보이는 설교라 할 수 있다.

이때 목사는 떡을 떼면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받아 드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사유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진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눈 후, 포도즙을 잔에 부으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사유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신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다.

일반적인 전통은 교회당 전면에 긴 테이블을 마련하고 한번에 3,40명씩 나와서 성찬에 참석하고 성찬을 마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잔은 개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적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큰 컵 넷을 사용하여 돌리게 된다. 이런 전통적 성찬예식 방법은 적은 교회에서는 쉽지만 큰 교회에서는 쉽지 않다.

(5) (C) 주의 온 교회를 위한 긴 기도

개혁신교회에서는 이 기도를 ‘기독교의 모든 필요를 위한 기도’(A Prayer for all the needs of Christendom)이라 부른다. 어떤 교회는 이를 목회 적 기

도라도 부르기도 하나 합당하지는 않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라고 했다.(딤후 2:1-3) 이 기도는 세계를 포괄하는 광범한 기도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 공적인 포괄적 기도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도할 항목을 잘 준비할 것이다. 기도를 세심하게 준비하고 기록하여 하는 것도 좋다. 이것이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일이다. 회중의 입이 되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 책임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감사와 입술의 제물이다.

(6) (C) 자비사역을 위한 헌금

H.C. LD. 38에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이런 내용의 답이 있다. “주의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사용하며, 공적으로 주께 간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예물을 드리며...”(to give Christian offerings to the poor)라고 한다.

개혁신교회에서 교회운영(목사의 사례 등)을 위한 재원의 확보는 자원하는 정액 헌금이다. 이것은 각인이 교회 운영위 앞으로 바로 보낸다. 주일 헌금은 언제나 목적이 있는 대내 대외 구제를 위한 것이다. 곧 집사들의 자비의 사역을 위한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바울은 ‘봉사의 직무’(administration of service, diaconia)라고 했다. 이 헌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6:1,2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개혁신교회는 이 헌금을 ‘the ministry of mercy’라고 한다.

헌금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연보 주머니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연보 쟁반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어떤 방법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마땅히 드러야 할 만큼 드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이 보이지 않게 주머

니를 좋아할 수 있다. 자기의 드리는 것을 나타내기 좋아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쟁반을 좋아할 수 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보 주머니를 사용한다.

근년에 이르러 예배순서에 헌금시간이 있어 헌금을 수집하지 않고 예배당 입구에 연보 궤를 두어 들어 올 때 넣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감사헌금 순서는 예배 시에 하나님 앞에 물질적 축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개혁 교회에서도 교회 입구에 여러 헌금함은 있다. (학교, 선교, 신학생 등을 위한 것) 그것은 교인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내는 것들로 주일에 드리는 헌금과 구별된다.

(7) 마침(예배의 절정)

♦ (C) 마침 찬송

예배의 마침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 활성화되고 강조되어 절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나아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다시 세상에서 일상생활을 당면하게 된다. 그러니 마침 찬송은 그리스도의 원수를 정복하고 나아가는 개적(凱旋的) 삶의 의미를 함축한 것도 좋게 생각된다. 이 마침 찬송은 회중이 일어서서 하고, 일어서 그대로 있으면서 축도를 받는다.

♦ (L) 축도

예배가 전체 예배를 포괄하는 축복으로 시작되었다. 마치는 축도는 다음 주일까지의 전 생활을 포괄하게 된다. 이 축복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가 우리들의 전 삶에 동반을 위한 것이다. 이 축복은 예배가 잘 끝났다는 마침표가 아니다. 이 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축도의 말 한 마디 한마디에 열려 있어야 한다. 삼위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시면서 우리를 내어 보내신다.

축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찌어다.”(고전 13:14) 혹은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취사 은

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를 사용한다.

축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야 한다. 경건한 인간의 소원을 첨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축도 후 목사가 강단에서 내려 올 때 담당 장로는 전에 등단할 때 악수한 자리로 나가 목사가 내려오면 악수를 하고 목사 앞서 인도하여 나가고 뒤에 당 회원들이 뒤 따라 나간다. 회중은 당회원들이 다 나가기까지 서 있고, 당회원들이 다 나간 후에 반주자가 예배 시작에서 전주를 했던 것 같이 후주를 하는 중에 회중은 나가게 된다. 회중이 모두 교회 당 밖에 나가기까지 오르간 반주자는 예배 시작에서 전주를 했던 것 같이 후주를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예배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

(1) 사도신경 고백

개혁교회에서는 두 번째 번 예배인 오후 예배 시에 하이델베그 교리문답 설교를 하게 되어 있다.(캐나다 개혁교회의 경우) 이 예배 시에는 십계명을 선언하지 않고, 대신에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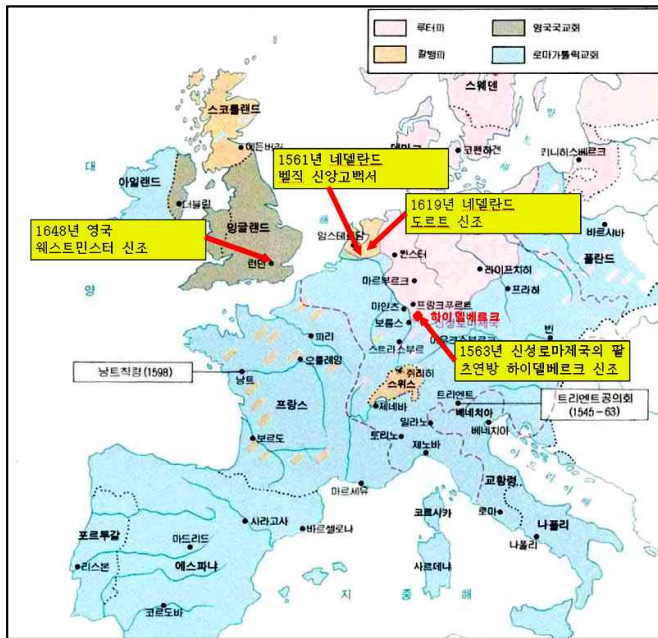
(2) 광고

광고는 가능한 한 주보에 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문맹이 별로 없는 오늘날에는 더욱 주보의 광고로 만족해야 한다. 교회에 공적으로 꼭 필요한 광고는 자비사역을 위한 헌금 바로 앞에 하는 것이 좋다.

(3) 개혁교회의 교리문답 설교

개혁교회의 두 번째 예배에서의 교리문답 설교는 그 역사가 개혁 교회만큼 오래 되었다. 교리문답은 네 기본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사도신경, 성례, 언약의 10계명,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다.

마르틴 루터가 1533년 윗텐베르그에서 그가 초안한 교리문답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칼빈의 뜻을 같이 했던 불링거(Bullinger)가 이미 1532년



개혁교회 4대 신앙고백서 발생지

(참고) 각 시대 예배의 특징

예배란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아진 총체적 표현이어야 한다. 또 자신의 신앙과 교리(신학)가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교회가 지켜온 성경적 내용과 전통의 핵심들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1. 구약시대 예배의 특징

구약 예배 중 말씀의 예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전에서 임해지기 위해 기록되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시편의 말씀 속에 있는 큰 뜻은;

- 1) 창조의 역사뿐 아니라 이집트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
- 2) 여호와께서 언제나 유대민족을 승리케 하신다는 승리의 노래
- 3) 적들을 파멸시키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격적인 노래
- 4) 인간들의 언약의 불성실을 탓하시면 서도 그들과 늘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고 계심을 믿는 신앙을 소유
- 5)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신앙을 간직

예배의 내용은 그들의 절기와 연관되어 있고, 그 삼대절기는 해방절로서 의미가 있는 유월절, 시내 산 언약을 기념하는 오순절, 광야의 천막을 치고 생활하던 일들을 기억하는 장막절이 있다.

또 구약 예배의 내용 가운데 희생제사의 기본 정신은 단순한 제의적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보여 주는 신앙의 표현이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사가 기쁨의 축제로 펼쳐졌다. 그들의 제사가 노래와 춤 악기의 사용과 환호성 등으로 하여 환희의 분위기를 형성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잃어버린 성전 예배를 회당 예배로 대체시키면서 예배 내용 자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장엄한 예배 의식은 축소시켰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심을 키우려는 노력만은 뚜렷했고 유대교 전통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의지 또한 계속되었다.

2. 신약시대 예배의 특징

에 교리문답설교를 시작했다. 런던에서 라스코(A. Lasco)가 1550년에 제네바 교리문답설교를 시작했고,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수용하여 제네바 교리문답을 대치하게 되었다. 화란에서는 가브리엘(Peter Gabriel) 목사가 1566년에 오후 예배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를 시작하게 되어 곧 많은 목사들이 뒤 따르게 되었다.

1618-19년 도르트(Dordrecht) 총회는 교회법질서의 예배 항목에 “당회는 규칙으로 매주일(오후 예배 시에) 한번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에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선포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넣음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당시는 68조에 있었음) 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52주로 나뉘어 있어 가능한 한 매주 이를 설교하게 되어 있다.

교리문답설교는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서 ‘완전한 구원의 교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교회에 속한 많은 신자들이 신앙, 칭의, 예정, 선택, 섭리, 교회에 대한 교리에 대하여 설명을 못하는 것을 본다. 교리를 알게 될 때 이단의 오류를 발견하고 물리칠 수 있다. (*) 글쓴

이 / 허순길 박사(전 고려신학대학원장)

- 1) 성경 봉독 후 강론
- 2) 인도자가 선창을 하고 회중이 반복하는 형태의 기도
- 3) 영적 예배 강조 순서

당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구약 시대부터 전래해 온 성전 예배에 참석을 했고, 정기적으로 회당에 참석했으며, 유대인들의 절기에가 지도 참석하셨다.

초기 기독교의 예배는;

- 1) 한동안 회당 예배와 성전 예배가 병행
- 2) 공동식사
- 3) 성만찬 예전과 함께
- 4) 특별한 은사가 나타남

초대교회의 예배 예전은;

- 1)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마음을 드림
- 2) 말씀의 뜻을 강해
- 3) 기도
- 4) 예물의 봉헌
- 5) 신앙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시간
- 6) 성만찬 및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세례를 베풀으로써 예수의 구속 사건의 새로운 다짐과 은총의 경험적 신앙을 갖게 되었다.

3. 중세시대 예배의 특징

동방교회는 예전의 순서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상상력과 시적인 표현을 가미했다. 미적인 장식과 깊은 신비의 가시적 추구가 현저해지고 언어사용보다는 성만찬 예배를 강조했다. 그러나 수많은 상징적인 성자들의 벽화(壁畵)로 인해 개혁자들은 거부했다.

서방교회는 로마인들의 심성 그대로 실용주의 정신이 예배 속에 적용되었다. 그레고리 교황은 단순한 예전을 취했다. 그러나 트론티 회의에서 확정된 의식은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과 함께 복잡성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둘 다 라틴어로 진행되었다.

중세교회 예전의 문제점은;

집례 하는 사제의 존재가 너무 신비스러웠고, 회중들은 예전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예전의 신비성은 죽은 자의 영혼 구원에까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탈선적 신앙을 불러일으켰다. 또 성모 마리아 및 성직자들의 숭배 행위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십계명 해석을 혼돈케 했다.

4. 종교개혁시대 예배의 특징

끊임없이 지적되어야 했던 예배의 무질서는 종교 개혁의 필연적 발생을 서둘러 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했고 칼빈은 성경에 입각한 삶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개혁을 추구했다.

개혁자들이 개혁을 주장했던 예전의 요소들;

- 1) 성만찬 중심의 미사를 계속하는 것을 반대, 이유는 성례전이 바로 신비한 사건의 발생만 거듭되는 형상으로 오도되었기 때문이다.
- 2) 성만찬의 화체설에 대해 거부, 성만찬에서 그 성물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성체가 되며 그리스도께서 거기 자동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반박
- 3)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미사 중심
- 4) 일반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만 집례
- 5) 하나님과 예배 자들의 중간 존재로 설정된 사제의 위치를 부정

개혁자들 사이의 각기 다른 예배 형태의 문제;

개혁자들 사이에도 각기 다른 예배 예전에 대한 주장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없었다. 그 차이들은 1) 로마 가톨릭의 예전을 고수하면서 부분적인 것만 수정하자는 루터, 2) 성공회의 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개신교의 새로운 예배를 주창했던 쾰링글리, 3) 공중 예배의 필요성마저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자유적인 재세례파(이들은 유아세례를 반대), 4) 성경대로만의 예배를 주장한 마틴 부처, 존 칼빈, 존낙스 등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들의 화합을 결렬케 한 것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성만찬에 임하시는가?”라는 성만찬의 문제였다.(*)